

1990년대 한국 여성비평가 연구

서재원*

〈차례〉

1. 서론
2. 여성의 몸: 인어공주와 아마조네스의 이중성
3. 여성의 언어: 고통과 희열의 이중성
4. 여성의 섹슈얼리티: 낭만적 사랑과 열정적 사랑의 이중성
5. 여성의 모성: 억압적 모성과 해방적 모성의 이중성
6.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한국문학사에서 여성비평가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 1990년대 한국여성비평가들의 비평담론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90년대에 활발하게 활동한 김미현, 신수정, 최성실, 심진경을 그 대상으로 논의하였다. 1990년대 여성비평가의 공통점은 이들이 모두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의한 비평을 비판적으로 파악하고 여성의 경험과 여성의 시각을 작품화한 여성작가를 적극적으로 조망하고 있다는 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오정희, 박완서, 신경숙, 은희경 등의 작가들에게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동시에 1990년대 여성비평가들의 차이점은 그들이 관심을 쏟는 문제의식과 연관되는데 김미현이 여성의 몸에, 신수정이 여성의 언어에, 최성실이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심진경이 모성의 문제에 관심

* 인하공전 교양과 교수

을 갖는 것은 여성비평가들 안에서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

김미현 비평의 핵심은 여성의 몸이며, 여성의 몸이 인어공주와 아마조네스의 이중성을 갖고 있으며, 생물학적 차원을 떠나 사회문화적인 구성물로 여성문학을 사유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신수정 비평의 핵심은 여성의 언어이며,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 남성의 상징적 언어체계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 내부의 욕망을 ‘비명’을 통해 존재를 드러내는 것임을 분석해낸다. 그 비명은 상징계 이전의 상상계의 언어이다. 신수정은 여성의 언어인 비명이란 억압되어 있는 자신만의 신생의 언어를 갈망하는 여성인물이 돌과귀를 찾아가는 모습을 드러내거나 혹은, 혼동의 언어를 몸으로 체험하는 것임을 통해, 여성의 언어가 고통과 희열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최성실 비평의 핵심은 여성의 섹슈얼리티로, 친밀성으로서의 섹슈얼리티 가운데 숭고함을 추구하는 낭만적인 사랑과 에로틱함을 추구하는 열정적인 사랑으로 구분한 후 논의를 전개한다. 낭만적인 사랑이란 정신적인 부분을 메워주는 영혼과의 만남을 가정하나 기존의 제도와 쉽게 단절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열정적인 사랑이란 관능과 유희의 극단을 치달으면서 욕망의 극단을 추구하지만 제도와 규범과 단절한 채 필연적으로 파멸을 향해 나아가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낭만적 사랑과 열정적 사랑의 이중성을 갖고 있다.

심진경 비평의 핵심은 모성으로, 모성을 생물학적으로 보는 시각이 모성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고 있다면, 모성을 사회 문화적으로 보는 시각은 모성이라는 실존적, 구체적 체험을 무시할 위험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비평가는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 모성과 생물학적 모성을 이분법적으로 가르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다. 비평가는 모성은 억압과 해방의 이중성을 갖고 있으며 여성작가들은 경험과 제도로서의 모성을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모성적 세계에 이르는 길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한국여성비평가들은 여성들 간의 차이나 여성 내부의 분열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주체성과 고유성에 관한 관심은 지속되어야 한

다는 데에는 공통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문학사에서 1990년대 여성비평가들은 문단의 변방이 아닌 주류에서 본격적인 비평가로 활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핵심어: 여성비평가, 1990년대, 여성의 몸, 언어, 섹슈얼리티, 모성성

1. 서론

한국문학사에서 여성작가에 관한 연구는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일정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한국문학사가 훨씬 풍요롭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에 비해 여성비평가에 관한 논의는 선구적인 연구¹⁾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나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미개척분야라는 것이 이 글의 출발점이다. 본고는 이러한 한국여성비평가에 관한 논의가 아직은 미개척 분야이며, 앞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한국여성비평가로서의 맹아는 거슬러 올라가면 20세기 전반기의 나혜석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나혜석은 전통적 가부장제에 도전하고 여성의 자의식을 부르짖는 자유주의 여성의 선각자적 인물이다. 나혜석은 소설 『경희』와 수필을 통해 여성이 남성 주체와의 관계에 의해서만 위치 지어지는 존재로 규정되어 온 것을 비판하면서, 교육주체와 결혼주체로서의 여성의 자각을 통해 근대적 개인주체로 탄생하기를 요구하고 있다.²⁾ 또한 나혜석은 여성의 고유한 경험을 공론화함으로써 여성의 문제를 좀 더 객

1) 이상경, 『한국근대여성문학사론』, 소명출판사, 2002.

김주연, 『현대 한국여성비평문학의 성장과 그 성격』, 『아시아여성연구』 44집 2호, 2005.

2) 서재원, 『나혜석 문학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25집, 2005, 209쪽.

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여성문학론의 중요한 측면임을 언급하였다.³⁾

이후 1930년대 후반에 등장한 임순득은 자기시대의 ‘여류작가’ 논의를 비판하고 여류작가도 여성이기 이전에 작가임을 강조하는 논쟁적인 글을 발표하면서 한국 최초의 여성평론가로 등장하였다.⁴⁾ 임순득은 사회주의 여성운동을 하면서 본격적인 비평가로서의 자의식을 갖고 ‘여성’과 ‘민족’에 관한 글쓰기를 감행하였다. 임순득은 소설 『일요일』과 많은 평론을 발표하면서 여성지식인의 내면의식을 보여주면서 감상주의를 비판하였다. 이상경은 임순득을 최초의 전문적 여성비평가로 평가하고 있다.

해방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던 여성문학에 관한 논의는 1980년대에 『여성과 사회』와 『또 하나의 문화』를 통해 본격화 되었다. 『여성과 사회』가 사회 변혁 속에서 여성의 문제를 모색했다면, 『또 하나의 문화』는 “진정한 여성성의 발견과 자매애(姉妹愛)를 통해 창조된 여성문화”를 주장했다. 지향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을 중심으로 본격화된 여성문학론은 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여성의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여성해방문학론을 지향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⁵⁾

1990년대는 성담론의 유행과 함께 페미니즘이라는 수식어의 등장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는 중심에서 소외되었던 주변부적 담론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대중문학의 경계의 문제, 탈식민주의담론, 여성과 환경 등의 논의를 끌어낸 사회적 분위기를 대변한다. 1990년대는 여성이 어느 정도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로서, 이것은 여성의 제반 권리의 향상과 여성운동의 활발한 담론에 힘입어 사회와의 관계성을 새롭게 구축하는 시기였다.⁶⁾

3) 서은아, 『신여성 나혜석의 근대적 자아정체성』,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6.

나혜석은 모성성과 섹슈얼리티의 충돌을 자각하여 공론화하였다. 나혜석의 『모된 감상기』는 모성과 관련되어 주목을 요하는 글이다.

4) 이상경, 『임순득, 대안적 여성주체를 향하여』, 소명출판사, 2009, 120쪽.

5) 이상경, 『한국근대여성문학사론』, 소명출판사, 2002, 26쪽.

6) 김재민, 『문학에서 드러난 여성운동과 그 비평담론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

이런 의미에서 1990년대는 한국에서 여성이 비평가가 된다는 것이 더 이상 이상하지 않는 최초의 시기였다. 왜냐하면 1990년대가 문학 외적으로는 거시적인 관심에서 미시적인 관심으로 전환하면서 탈이념, 일상성, 내면성의 문제가 부각된 시기인데, 이런 문제의식은 자연스럽게 여성성과 함수관계를 맺게 되었다. 더구나 1990년대는 문학에서 독자의 영역에 머물러있던 여성들이 대거 작가로 등장하면서 여성문학이 한국문학의 주류로 편입한 황금기였다. 1990년대에는 문학 전반에 걸쳐 이른바 많은 여성 문학가들이 진출하는 문학의 확산과 함께 페미니즘 논의가 활발해지는 이론적 심화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또한 문단 내적으로는 고등교육을 받은 많은 여성작가와 여성평론가들이 신춘문예와 문학잡지를 통해 ‘문학의 장’ 안으로 대거 진입하였다. 박혜경과 황도경은 1990년대 여성비평가 그룹의 제일 앞에서 활동한 선두 주자로 볼 수 있다. 박혜경의 경우는 사실상 1990년대 여성비평문학의 문을 연 담당자이다. 특히 『여성의 자기 정체성 찾기』라는 글은 1990년대 페미니즘 문학을 여는 일종의 이정표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황도경의 경우는 여성비평가의 시각으로 다시 읽는 본격적인 여성작가론을 집중적으로 발표한 점에서 주목해야한다. 여기서 그녀는 박완서에서 송경아까지 분석하면서 여성작가의 여성성 발굴에 관심을 집중한다. 특히 “마녀의 탄생”⁸⁾으로 명명한 ‘전경린론’은 여성비평가로서의 비평안이 드러나는 뛰어난 평론이다.

문학비평에서 페미니즘의 영향은 30여 년 동안 그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포스트-페미니즘’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젠더뿐만이 아니라 계급, 인종, 종교와 섹슈얼리티에 의한 육체성

논문, 2004.

- 7) 1990년대 문학잡지에서 여성작가와 관련된 기획 특집이 활발해진 것은 이러한 사정을 뒷받침한다. 『문학사상』의 ‘여성주의문학’(1990), 『문학동네』의 ‘여성, 여성성, 여성소설’(1995), 『소설과 사상』의 ‘여성소설의 어제와 오늘’(1996) 『실천문학』의 ‘90년대 여성작가, 무엇을 남겼나’(1999) 등을 들 수 있다.
- 8) 황도경, 『우리시대의 여성작가』, 문학과지성사, 1999, 169쪽.

이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다. 페미니즘 문학비평은 초기에는 문학에 나타난 여성의 재현문제, 여성작가의 역사, 여성의 자서전적 글쓰기 등을 주로 다루었다. 최근 들어 페미니즘 비평가들은 후기구조주의와 페미니즘 비평 혹은 정신분석적 페미니즘 비평, 프랑스 페미니즘 비평과 여성의 몸 에 대한 글쓰기, 후기식민주의와 페미니즘 비평, 퀴어 이론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⁹⁾

김주연¹⁰⁾은 문학비평 분야에서 거의 불모지에 가깝던 여성문학이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여성비평가들의 대거 등장으로 이른바 페미니즘 비평이 대두되었음을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여성비평가들의 비평의 성격은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여성문학의 비판적 자의식이라는 이데올로기 문제와 장르로서의 여성비평문학이라는 양식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페미니즘의 역사적, 이론적 흐름을 바탕으로 1990년대 한국여성비평가들의 비평담론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여성비평가들의 비평관과 여성비평의 흐름을 살펴볼 것이다. 논의의 집중을 위해 1990년대 등단한 여성비평가들의 비평집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분석의 대상을 김미현, 신수정, 최성실, 심진경을 중심¹¹⁾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9) Gill Plain & Susan Seller, *A History of Feminist Literary Criticism*, Cambridge U.P., 2007, pp. 1-3.

10) 김주연, 『현대 한국여성비평문학의 성장과 그 성격』, 『아시아여성연구』 44집 2호, 2005.

11) 4명의 여성비평가를 선택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4명의 여성비평가들은 각각 문학잡지의 편집위원으로 1990년대 문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실제비평가였으며, 둘째 2000년대 초 비슷한 시기에 첫 평론집을 발간하였다. 이에 같은 시기에 활동한 4명의 여성비평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조망함으로써 1990년대 여성비평가들의 '여성'으로서의 공통적임 문제의식과 또한 비평가로서의 '차이'를 조망할 수 있으리라는 이유 때문이다.

2. 여성의 몸: 인어공주와 아마조네스의 이중성

김미현의 비평집인 『여성문학을 넘어서』¹²⁾는 20세기 여성문학의 빛과 그늘을 중심에 놓고 여성문학의 과거와 미래를 성찰하고 있다. 김미현은 Herstory, Gender, Reality, Power라는 키워드를 통해 ‘그녀들만의 역사’에 눈을 뜬 여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고유성’을 획득할 수 있는지에 주목한다. 여성작가들은 여성들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여성들의 몸과 감각과 언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가부장제, 자본주의, 식민주의라는 삼중고(三重苦) 속에서 어떻게 자아와 가족, 계급의식을 형성하는지 논의하고 있다. 나아가 이런 작업을 통해서 여성에 대한 차별만을 강조했던 ‘피해자 페미니즘’이나 여성이 남성과 자리만 바꾼 ‘전투적 페미니즘’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랑, 모성, 생명 등 여성적 가치를 중심으로 여성의 힘과 다름을 강조하는 ‘파워 페미니즘’으로 나갈 수 있음을 역설했다.

김미현 역시 여성작가들에게만 지면을 할애한 것은 아니지만, 김명순, 강경애, 최정희, 백신애, 김말봉, 강신재, 박완서 등 20세기 한국 여성문학의 고전을 발굴하는 것은 물론 은희경, 공선옥, 서하진, 배수아 등 동시대 여성작가들의 작품을 애정을 갖고 섬세하게 분석했다. 은희경의 소설에서 ‘판도라의 춤’을 읽어내고,¹³⁾ 김미현은 배수아 소설에서 ‘이미지가 생성하고 움직이고 기억하고 글을 쓰는 과정’을 읽어내고,¹⁴⁾ 신경숙의 소설에서 사랑으로 인한 위안과 상처를 ‘유산과 불임’으로 읽어내고 있다.

김미현의 비평 가운데 가장 주목을 요하는 글은 『인어공주와 아마조네스, 그 사이』이다. 이 비평은 여성의 몸에 대한 철학적 사유에서 시작된 글이다. 비평기는 남성의 몸이 일반적인 인간의 몸을 대표하는 데 반해,

12) 김미현, 『여성문학을 넘어서』, 민음사, 2002.

13) 김미현, 위의 책, 245~263쪽.

14) 김미현, 위의 책, 317~335쪽.

여성의 몸은 아직도 금기시되고 초월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한편으로 여성의 몸은 피폐해진 세상을 구원할 ‘대지’로 간주되면서 풍요와 치유의 상징으로 격상(格上)되거나, 다른 한편으로 여성의 몸은 영혼이 부재하는 ‘텅 빈 그릇’으로 간주되어 불완전한 남성의 몸으로 격하(格下)되기도 한다. 때문에 여성에게 몸은 ‘순응의 최후방’이자 ‘저항의 최전방’이 될 수 있으며, 순응의 극단에 ‘인어공주’가 있고 저항의 극단에 ‘아마조네스’가 있다고 파악한다. 그리고 오정희의 『중국인거리』를 대상으로 여성작가가 바라본 여성의 몸을, 전경린의 『남자의 기원』을 대상으로 여성작가가 바라본 남성의 몸을, 이윤기의 『진홍글씨』를 대상으로 남성작가가 바라본 여성의 몸에 관하여 분석한다.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는 6.25전쟁 직후의 인천 차이나타운을 배경으로 한 조숙한 열 살의 여자아이가 성과 죽음을 알게 되는 성장소설이다. 가난한 중국인 거리에 사는 여자아이는 아기는 “여자의 별거벗은 두 다리 째에서 비명을 지르며 나온다는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다”¹⁵⁾고 단언한다. 여자아이는 혼혈아를 키우는 매기언니와 일곱 번째 아이를 임신한 어머니를 통해 식민화된 여성의 몸과 만나게 된다. 특히 거둬지는 임신과 출산에 의해 황폐해진 어머니를 통해 여성의 몸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이에 대하여 김미현은 식민화된 여성 몸의 원형으로 인어공주를 논의한다.

식민지화된 여성의 몸을 안데르센 동화에 등장하는 인어공주의 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랑하는 왕자를 얻기 위해 인어공주가 잃은 것은 자신의 목소리였고, 얻은 것은 두 다리였다. 목소리는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몸이기에 자아정체성을 상징한다. 반면 다리는 반인반어(半人半魚)에서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다리는 남근과 비슷했던 인어의 꼬리 대신 여성성기가 생겨났다는 징표가 된다. 하나의 다리인 ‘꼬리’로는 남성의 몸이 들어갈 수가 없다. 때문에 피부를 갈라 두 개의 다리를

15) 오정희, 『중국인 거리』, 『유년의 뜰』, 문학과지성사, 1981, 71쪽.

만들어야 한다.

이때 다리가 갈라짐으로써 생긴 여성의 성기를 통해 인어공주가 비로소 성적인 여성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인어공주의 피부는 그냥 갈라진 것이 아니라 처녀막처럼 찢어진 것에 더 가깝다. 그런 상실과 육체적 고통을 겪은 후에야 인어공주는 어린아이가 아닌 성숙한 여인으로 성장한다.¹⁶⁾

김미현은 인어공주를 남성에게 순응하는 식민화된 여성의 몸을 상징하는 인물로 본다. 여성의 육체적 성장은 성행위나 임신 출산이 불가능한 몸에서 그런 것이 가능한 몸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의 여자아이가 “여성의 동물적인 삶에 대해 동정”하지만, 소설의 마지막이 여자 아이의 ‘월경’으로 끝나는 것도 여자아이 역시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 여성의 몸을 갖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고도의 전략으로 보인다.

이윤기의 『진홍글씨』는 남녀평등주의자였던 남편의 뒤늦은 가부장적 사고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소설이다. 이윤기는 아마존 이야기를 통해 소설을 풀어나간다. 아마조네스의 잘린 오른쪽 유방은 저항하는 여성의 몸을 상징한다. 아마조네스는 남성의 성적 대상이 되는 아름다운 유방이나 인위적 유방이 아니라, 일그러진 유방이나 있는 그대로의 유방을 통해 자기 몸의 주인이 되려는 몸짓을 상징한다. 이윤기는 스스로 자른 한쪽 유방을 지닌 아마조네스들을 통해 억압적인 모성을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다.

김미현은 여성의 몸이 여성 경험의 토대이자 은유임을 역설한다. 그런데 세상이 여성의 몸을 강요하거나 배제시킴으로 훼손시키는데, 이런 극단에 인어공주와 아마조네스가 존재한다고 본다. 그러나 둘 다 온전한 여성의 몸이 아닌 ‘훼손된 몸’이라는 점에서 여성이 처해있는 비정상적인

16) 김미현, 『인어공주와 아마조네스, 그 사이에서』, 앞의 책, 85쪽.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이런 의미에서 김미현에게 여성의 몸은 인어공주와 아마조네스의 이중성을 갖고 있으며, 생물학적 차원을 넘어서는 사회문화적 구성물이자 여성문학을 사유할 수 있는 중요한 비평적 담론이다.

3. 여성의 언어: 고통과 희열의 이중성

신수정의 첫 비평집인 『푸줏간에 걸린 고기』¹⁷⁾는 ‘1990년대’와 ‘1990년대의 젊은 작가들’을 중심에 놓고 한국 문학의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이 책은 1990년대 문학이 개인의 경험을 하나의 의미로 환원시키고 그것의 구체적인 진실을 은폐하는 집단 통념에 대한 거부의 목소리라고 보는 문학일반론을 다룬 1부와 작가론 위주의 2부와 작품론 형식의 3부 그리고 리뷰형식의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신수정 역시 여성작가들에게만 지면을 할애한 것은 아니지만, 박완서에서 은희경, 신경숙, 하성란, 배수아, 조정란, 한강 등 동시대의 여성작가들의 작품을 여성의 시각으로 섬세하게 분석한다. 은희경의 소설에서 “유쾌한 환멸과 우울한 농담”의 이율배반을 읽어내고, 조정란의 소설에서 “집으로부터 도피의 여정”을 읽어내고, 한강의 소설에서 “집을 향한 회귀의 여정”을 읽어내면서,¹⁸⁾ 여성 작가의 소설을 통해 집과 가족이라는 테마를 심도 깊게 논의한다.

특히 신수정이 가장 공들여 분석의 대상으로 잡은 작가는 신경숙이다. 신경숙에 대한 신수정의 관심은 ‘90년대’와 ‘여성’이라는 두 가지 문제의 식에서 출발한다. 우선 그녀는 신경숙의 『바이올릿』에 등장하는 여성인물 오산이를 ‘타자’로 읽어낸다. “오산이는 아버지의 호명을 받지 못한 존재이다. 그녀에게 이름을 부여해주고 상징적 질서의 안쪽으로 끌어당겨

17) 신수정, 『푸줏간에 걸린 고기』, 문학동네, 2003.

18) 신수정 『옥탑방과 지하방의 상상력』, 위의 책, 390쪽.

줄 유일한 존재로서의 아버지는 없다. 절대적인 아버지의 부재가 그녀를 하나의 ‘잉여’ 혹은 정반대의 텅 빈 ‘결여’로 만든다. 아버지의 호명이 없이 그녀가 우리들의 의미체계 속으로 진입할 길은 없다. 당연히 그녀는 우리들의 언어로는 포착되지 않는 ‘타자’의 영역에 속한다. 그리하여 오산이는 바이올렛처럼 어디에나 흔하게 피어있는 작은 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누군가 그 존재를 ‘알아본다’면, 비로소 오산이는 타자가 아닌 주체가 될 수 있다.”¹⁹⁾ 신수정은 신경숙의 소설에서 ‘알아본다’가 갖는 메타포를 분석하여 방에 유폐된 존재가 세계와 소통하려는 욕망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분석한다. 이러한 소통욕망은 신경숙 소설에서 동성애적 코드로 드러나기도 하고, 글쓰기에 대한 욕망으로 드러나기도 함을 밝힌다.

신수정의 여성적 글쓰기, 혹은 여성과 문학의 관계를 읽어낼 수 있는 평론은 『비명과 언어-여성을 말한다』이다. 그녀는 여성작가들의 작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비명’이라는 단어에서 여성적 글쓰기의 원형을 파악한다. 이 비평문은 마르그리트 뒤라스의 『모데라토 칸타빌레』, 신경숙의 『바이올렛』, 김혜순의 『불쌍한 사랑기계』를 검토한 후 외국소설, 한국소설, 한국시에 등장하는 ‘비명’을 출산의 고통이나 희열과 관련지어 분석하고 있는 의미 있는 글이다.

이 ‘비명’들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흔히들 비명이란 언어화되기 이전의 단계, 의미로 분절되기 이전의 음성이라고 말한다. 즉 언어적 상징화 과정의 이전, 혹은 그 바깥에 존재하는 언어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비명을 언어라고 말하기는 곤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급박한 상황에 놓였을 때 말보다 먼저 외마디 비명을 내지르기도 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비명 역시 또 하나의 언어라고 할 수 있다. 분명, 비명은 존재의 표현이자 존재 그 자체다. 그 속에는 사회적 상징체계보다 더 직접적이고 더 절실한 무엇인가가 깃들여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언어화되지 못한 언어는 아

19) 신수정 『다시, 썩어지는 이야기-신경숙의 바이올렛』, 앞의 책, 257쪽.

닌가. 비명은 아직 언어화 되지는 못했지만 끊임없이 언어를 발생시키고 규제하는 의미의 원천으로서 언어와 비언어의 경계를 암시하는 그 무엇인지도 모른다.²⁰⁾

비명이란 언어가 되기 이전의 소리, 라캉 식으로 말하면, 상징계 이전인 상상계의 언어이다. 그래서 그것은 “카니발의 웃음이거나 무의미한 중얼거림”이다. 신수정은 비명을 신경증 환자의 병력구술(病歷口述)로 이루어진 『모데라토 칸타빌레』, 고통 속에서 어머니의 상처와 어머니의 몸을 발견해내는 신경숙의 『바이올렛』, 여성만이 소리를 손길로 변용시키는 몸의 에로스를 알고 있다는 김혜순의 『불쌍한 사랑기계』의 분석을 통해 구체화시키고 있다.

신수정은 『모데라토 칸타빌레』를 분석하면서, “자기 안의 비명 소리를 환기하기 시작한 여성은 이제 말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것은 더듬거리며 이어지는 다양한 환유의 사슬이거나 질병에 대한 구술로 드러날 뿐이다. 바로 ‘그것’을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은 언제나 부재한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항상 다른 어떤 것을 이야기 하지 않으면 안 된다”²¹⁾고 서술한다. 그녀에 따르면 여성의 언어는 논리적 의미를 함유하고 있는 남자의 언어가 아니라, 환유의 단어더미들이며, 단발마적인 비명이다. 그 비명은 신경숙의 소설에서는 “고통이 어머니의 상처로 전이되고 어머니의 몸의 발견으로 이어지는 희열(jouissance)의 과정”²²⁾으로 드러나기도 하며, 또한 김혜순의 시에서 비명은 출산으로 상징되는 “혼동의 언어를 몸으로 체험하는”²³⁾ 것이기도 하다.

신수정은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 남성의 상징적 언어체계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 내부의 욕망을 ‘비명’을 통해 존재를 드러내는 것임

20) 신수정, 『비명과 언어』, 앞의 책, 20쪽.

21) 신수정, 위의 글, 27쪽.

22) 신수정, 위의 글, 35쪽.

23) 신수정, 위의 글, 44쪽.

을 분석해낸다. 그 비평은 상징계 이전의 상상계의 언어로 볼 수 있다. 신수정은 그러한 여성의 언어를 갈망하는 여성인물이 억압으로부터 돌파구를 찾아내거나, 혹은 혼동의 언어를 신생의 언어로 빚어내는 여성적 체험에 주목함으로써, 여성의 언어가 고통과 희열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4. 여성의 섹슈얼리티: 낭만적 사랑과 열정적 사랑의 이중성

최성실의 첫 비평집인 『육체, 비평의 주사위』²⁴⁾는 1990년대 한국문학의 미세한 지각을 발생시키는 육체의 의식적 무의식적 요건들을 분석하고 있다. 이 비평집은 한국문학의 성적 상상력과 성정치학을 개괄하면서, 여성작가의 작품에 나타나는 여성의 섹슈얼리티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최성실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포르노, 에로티즘, 섹슈얼리티 등 도발적인 테마를 주제로 한 비평담론을 논의하고 있다.

최성실 역시 여성작가들에게만 지면을 할애한 것은 아니지만, 오정희, 서하진, 전경린, 배수아, 이평재, 오수연, 김연경 등 동시대 여성작가들 가운데에서도 도발적이고 파격적인 작가의 작품에 애정을 갖고 문학적 의미를 부여한다. 전경린과 서하진의 소설에서 “사회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구성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나, 자기 안에 감추어진 광기와 환상과 꿈을 현실에서 재현하고자 하는 욕망과 맞물려 있다”²⁵⁾고 분석하거나, 배수아의 소설에서 ‘잡종적 주체’²⁶⁾를 읽어낸다.

여성적 글쓰기에 관한 테마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평론은 1950년에서 1990년에 이르는 여성작가의 작품을 통해 여성성과 근대성의 상관

24) 최성실, 『육체, 비평의 주사위』, 문학과지성사, 2003.

25) 최성실, 『상징으로부터의 일탈을 꿈꾸는 소설의 이피퍼니』, 위의 책, 191쪽.

26) 최성실, 『그대가 부르는 이름, -잡종적 주체를 위한 변명』, 위의 책, 122쪽.

관계를 검토한 『근대, 자본주의, 여성성』이다. 비평가는 이 글에서 근대 자본주의와 여성성을 결부시켜 이중성에 대해 언급한다.

사실 여성성의 문제는 시대와 상황에 따른 차이를 만들어 내며 그 차이의 생산이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동시에 논의되어야 한다. 여성성은 근대성을 대변하는 남성성의 문제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면 이의 합성물인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성, 진보, 발전의 논리로 이루어진 근대성의 대변자가 남성적인 것으로만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성 자체에도 근대성과 결탁하기도 하고 모순되기도 하는 수많은 논리가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성성의 문제는 근대적인 것과 대치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뒤틀리며 일어나는 내파의 영역이라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²⁷⁾

최성실은 여성이 자신의 몸을 담보로 근대적인 것과 맞서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 몸을 통해 근대적인 것을 구체화 시켜야 하는 이중성, 혹은 양가성의 운명에 처한 것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여성성은 단지 남성성이나 근대성과 대립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논의는 이후 여성문학을 비평하는 데에 중요한 준거로 작동한다. 그렇다면 여성 비평가 안에서 최성실의 개성이 부각되는 지점은 무엇일까? 이는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평론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최성실은 섹슈얼리티에 관하여 “섹슈얼리티는 물질적인 의미의 포르노와 에로티즘을 포괄하는 성담론으로 구체화되면 성을 둘러싼 담론체계, 문화, 관습, 의식적 실천들을 아우르는 용어로 일반화”²⁸⁾하여 논의하고 있다. 특히 『메두사의 얼굴을 한 섹슈얼리티, 그 존재적 모순』은 최성실의 개성을 읽을 수 있는 비평이다. 섹슈얼리티 문제에서 사랑을 도식화하자면 숭고함을 추구하는 낭만적인 사랑과 에로틱함을 추구하는 열정적

27) 최성실, 『근대, 자본주의, 여성성』, 앞의 책, 76~77쪽.

28) 최성실, 『한국문학의 성적 상상력』, 위의 책, 64쪽.

인 사랑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낭만적인 사랑이란 정신적인 부분을 메워주는 영혼과의 만남을 가정하며 불완전한 개인을 완전한 전체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낭만적인 사랑이란 기존의 제도와 쉽게 단절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숭고한 사랑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려고 한다. 이에 반해 열정적인 사랑이란 관능과 유혹의 극단으로 치닫고 파멸도 불사할 만큼 욕망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열정적인 사랑이란 제도와 사회적인 규범과 과감하게 단절한 채 육체적 쾌락을 키워나간다.

최성실은 이런 섹슈얼리티 문제로 개인과 개인 사이를 규정하고 있는 친밀성의 문제를 되짚어 보기 위하여 오정희, 전경린, 이평재 소설을 호명한다. 비평가의 분석에 따르면, 오정희의 소설은 낭만적인 사랑이라고도 열정적인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없고, 균형 잡힌 시선으로 이 두 영역을 직시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전경린은 열정적인 사랑이 과연 모든 제도적인 것을 초월하여 완벽한 것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을 던진다고 본다. 그리고 열정적인 사랑도 결국에는 제도와 주변의 응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망가진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에 반해 이평재는 낭만적인 사랑이나 열정적인 사랑 자체가 아닌 감각의 문제에 관심을 쏟는다고 해석한다. 그리고 이것은 섹슈얼리티와 친밀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부하고 육체적 감각 자체를 끝까지 견지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잉여적인 억압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최성실은 여성의 섹슈얼리티 문제에 집중한다. 친밀성으로서의 섹슈얼리티 가운데 숭고함을 추구하는 낭만적인 사랑과 에로틱함을 추구하는 열정적인 사랑으로 구분한 후 논의를 전개한다. 낭만적인 사랑이란 정신적인 부분을 메워주는 영혼과의 만남을 가정하나 기존의 제도와 쉽게 단절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열정적인 사랑이란 관능과 유혹의 극단을 치달으면서 욕망의 극단을 추구하지만 제도와 규범과 단절한 채 필연적으로 파멸을 향해 나아가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낭만적 사랑과 열정적 사랑의 이중성을 갖고 있다고 파악한다.

5. 여성의 모성: 억압과 해방의 이중성

심진경의 첫 비평집인 『여성, 문학을 가로지르다』²⁹⁾는 ‘여성’과 ‘섹슈얼리티’를 중심에 놓고 여성 문학의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이 비평집은 한국문학의 섹슈얼리티와 여성성, 육체, 글쓰기의 문제와 비평가의 페미니즘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는 모성의 상상력을 다룬 글들로 구성되어 있다.

심진경은 왜 ‘여성’과 ‘섹슈얼리티’를 글쓰기의 주제로 설정했는가에 대해서 “여성은 문학 안에서 언제나 타자로서 소외되어 왔다. 그리고 섹슈얼리티의 문제는 그러한 여성의 타자화가 어떠한 심리적 사회적 메커니즘을 거쳐 이루어지는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지점이다. 여성은 상징적 질서의 모순과 틈을 들여다봄으로써 지배질서의 승인을 거부하고 그 질서 속에서는 포착될 수 없는 욕망과 언어를 드러내는 존재다”라고 밝히고 있다.

‘여성’에 관한 테마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염상섭과 이효석의 소설을 검토한 『문학 속의 소문난 여자들』에서이다. 이 글은 근대 초기의 신여성과 관련하여 “여성에 관한 소문의 서사화가 성별화 된 (gendered) 위계질서를 지지하는 어떤 지식-권력의 작동과 긴밀하게 관련된 것일 수도 있음을 암시”³⁰⁾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남성작가들이 그려낸 여성 이미지와 ‘소문의 수사학’을 살펴보고 있다. 근대 초기의 실존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설에서 남성작가들은 신여성의 내면을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그려내는 방식에 의해 신여성의 외양이나 행동은 물론이거니와 내면까지도 철저히 지배되고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근대 사회의 새로운 주체로 떠올랐던 신여성을 섹스와 돈에 환장한 허영심 덩어리로 규정하는 소문의 서사화는 남성지배적인 권력이 여성에 관한 규범을 만들어나가는 작동 기제의 하나로 파악할 수 있다.

29) 심진경, 『여성, 문학을 가로지르다』, 문학과지성사, 2005.

30) 심진경, 『문학 속의 소문난 여자들』, 위의 책, 14쪽.

이에 대해 심진경은 남성들은 왜 도덕적 심판관의 외피를 걸쳐야 했을까 하는 물음을 제기하고, 여성에 관한 일련의 소문이 남성의 그늘진 욕망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되며 그들에 의해 만들어진 소문난 여자들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사회에서 내려온 가정의 천사/ 사회의 악마라는 이분화 된 여성의 표상 또한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반복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에 불과”³¹⁾하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근대초기에 남선중심의 지식과 권력구조가 공모하여 성별화(性別化)된 소문을 만들고 유포되는 과정에서 배제의 구도 속에 신여성이 철저히 대상화 되어 있음은 많은 연구자³²⁾에 의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여성문학에 나타난 ‘섹슈얼리티’의 문제는 『불륜의 서사, 여성문학과 섹슈얼리티』에 잘 드러나 있다. 가부장제에 있어 여성의 성은 신비화되거나 폄하되어 왔다. 그녀는 1990년대부터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표현이 달라졌다고 보고, 여성들의 성적 욕망에 대한 각성은 여성들의 욕망 찾기라는 긍정적 의미 못지않게 그 한계 역시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성 비평가 안에서 심진경의 개성이 부각되는 논의는 무엇일까? 이는 모성과 관련된 글들로 보인다. 심진경은 “모성성의 담론이 90년대 여성소설의 지형도 속에서 페미니즘의 새롭고 의미 있는 하위담론이 될 수 있다”³³⁾고 생각한다. 심진경은 모성에 관한 일련의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³⁴⁾ 모성에 관한 기존 논의는, 모성을 생물학적 본능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d에 집중되어 있다고 본다. 모성을 생물학적으로 보는 시각이 모성 이데올로기

31) 심진경, 앞의 글, 26~27쪽.

32) 김연숙, 『여성, 소문으로 말해지다』, 『그녀들의 이야기, 신여성』, 역락, 2011, 13~34쪽.

33) 심진경, 『모성의 서사와 1990년대 여성소설의 새로운 길 찾기』, 앞의 책, 166쪽.

34) 『모성적 육체의 상상력- 노혜경과 김혜순의 시를 중심으로』, 『오정희 초기소설에 나타난 모성성』, 『모성의 서사와 1990년대 여성 소설의 새로운 길 찾기』 등의 평론 참고.

를 재생산할 위험을 갖고 있다면, 모성을 사회 문화적으로 보는 시각은 모성이라는 실존적, 구체적 체험을 무시할 위험을 갖고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심진경은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 모성과 생물학적 모성을 이분법적으로 가르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생물학적 섹스(sex)도 문화적인 젠더(gender)만큼 구성적이라는 주디스 버틀러의 지적은 시사적이다. 즉 젠더가 사회적 인공물인 것과 마찬가지로 섹스 자체도 사회적 문화적으로 구성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성의 생물학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이 서로 구분될 수 없을 만큼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 모성과 생물학적 모성을 이분법적으로 가르는 것은 무의미하다. 오히려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 모성의 기반에 존재하고 있는 생물학적 모성체험의 구체성을, 그리고 동시에 생물학적 모성 체험에 각인되어 있는 사회문화적 구성 작용을 함께 고려하는 시각이 필요할 것이다.³⁵⁾

심진경은 모성에 관하여 “모성은 여성들 각각의 개별적인 경험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개별적 차원과 사회 역사적으로 조건 지어지는 담론적 차원에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³⁶⁾는 기본 전제를 깔고 여성작가들의 작품을 분석하고 있다. 즉, 노혜경과 김혜순의 시를 분석한 이후, “그들의 시 속에서 모성은 더 이상 상징질서의 폭력을 따뜻하게 위무해주는 상징질서 이전의 미분화된 가치로서 신비화 되지도 않으며, 탈물질화된 기호로서 관념화되지도 않는다. 노혜경의 모성이 의식적 기획의 차원에서 작동하는 것과는 달리, 김혜순의 모성은 상당부분 무의식적 차원에서 작동한다. 노혜경의 시에서 모성이 현실을 초월한 어떤 곳에 있다면, 김혜순의 시에서 모성은 자본주의적인 일상 질서의 폭력성과 반생명성이 새겨지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타자와의 소통과 생명력의 순환을 가

35) 심진경, 『모성적 육체의 상상력』, 앞의 책, 120쪽.

36) 심진경, 『모성의 서사와 1990년대 여성 소설의 새로운 길찾기』, 앞의 책, 184쪽.

능하게 하는 통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모순이 소용돌이치는 공간”³⁷⁾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심진경은 오정희의 소설을 분석하며 “초기소설에서는 생물학적 모성에 대한 거부를 드러내는데 비해 후기 소설에서는 모성을 긍정하고 있다면서 가부장적 권위를 상징하는 신에게 혼전 임신의 산물인 태아를 제물로 바치는 번제 행위를 통해 자신의 모성을 거부했던 서술자는 이제 그러한 태아 살해의 죄의식과 이에 대한 속죄의 퍼포먼스를 통해 가부장제에 의해 부정된 자신의 모성을 회복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그 결과 남성의 시선에 의해 정상과 비정상이 가름되는 현실 속에서 자신의 진정성을 찾고자 하는 여성의 노력은 이제 어머니 되기를 거부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모성적 체험을 극화하는 데로 나아가고 있다”³⁸⁾고 분석한다.

심진경의 이러한 진술은 크리스테바가 말한 ‘비체(subject)’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한다. ‘비체’는 주체(subject)도 객체(object)도 아닌 것, 즉 주체와 주체 사이에 일어나는 관계의 물질적 양상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심진경의 모성과 관련된 진술은 생명과 죽음의 부여자로서, ‘숭배와 공포의 대상인 모성의 이중적 기능’을 받아들여, 모성에 대한 이론적 사유와 구체적 경험을 끌어안으려는 전략으로 보인다.³⁹⁾

심진경은 모성을 생물학적으로 보는 시각이 모성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고 있다면, 모성을 사회 문화적으로 보는 시각은 모성이라는 구체적, 실존적 체험을 무시할 위험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그녀는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 모성과 생물학적 모성을 이분법적으로 가르는 것은

37) 심진경, 『모성적 육체의 상상력』, 앞의 책, 134~135쪽.

38) 심진경, 『오정희 초기소설에 나타난 모성성』, 앞의 책, 160쪽.

39) 모성과 관련하여 모성을 여전히 낭만화 시키는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와 모성을 괴물 혹은 마녀와 동일시하는 봉준호의 <마더>에 나타나는 모성이데올로기를 비판한 글은 주목을 요한다.

조선정, 『모성 서사와 그 불만』, 『페미니즘-차이와 사이』, 문학동네, 2011, 300~322쪽.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다. 비평가는 모성은 억압과 해방의 이중성을 갖고 있으며 여성작가들은 경험과 제도로서의 모성을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모성적 세계에 이르는 길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6. 결론

본고는 페미니즘의 역사적, 이론적 흐름을 밑배경으로 하여, 1990년대에 등단하여 2000년대에 비평집을 간행한 젊은 한국여성비평가들의 비평을 통해 1990년대 여성비평담론을 살펴보았다. 여성비평가들의 페미니즘적인 문제의식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1980년대 중·후반에 대학을 다니고 1990년대 중·후반에 등단하여 2000년대에 평론집을 간행한 여성비평가들이 공유한 부분이다. 김미현, 신수정, 최성실, 심진경 등은 우리 시대의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여성 비평가로서의 개성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1990년대 여성비평가가 등장할 수 있는 토대는 사실 여성작가의 활발한 작품 활동과 긴밀한 연관을 갖는다. 여성작가들의 소설에서 다루어지는 성장기 체험이나 연애, 결혼, 임신, 출산 등의 경험은 기존의 남성작가들의 작품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다. 여성작가들의 소설은 한국 사회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연애와 사랑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가부장적 가족 구조에서 어머니와 딸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등 여성들의 체험을 작품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와 모성과 언어의 문제 등이 담론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여성작가와 여성평론가가 조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김미현은 여성의 몸은 여성 경험의 토대이자 은유임을 역설한다. 그런데 세상이 여성의 몸을 강요하거나 배제시킴으로 훼손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이런 극단에 인어공주와 아마조네스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둘 다

온전한 몸이 아닌 훼손된 몸이라는 점에서 여성이 처해 있는 비정상적인 현실을 보여준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의 몸은 생물학적 차원과 사회문화적인 구성물이 라는 이중성을 갖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신수정은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 남성의 상징적 언어체계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 내부의 욕망을 ‘비명’을 통해 온몸으로 존재를 드러내는 것임을 주장한다. 신수정은 그 비명을 상징계의 언어가 아닌 상상계의 언어로 규정하고, 그러한 신생의 언어를 갈망하는 여성인물이 억압으로부터 돌파구를 찾아내거나, 혹은 혼돈의 언어를 몸으로 체험한다는 것을 통해 고통과 희열의 이중성을 가진 여성 언어의 특징을 밝혔다.

최성실은 여성의 섹슈얼리티 문제에 질문을 던진다. 그녀는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친밀성으로서의 섹슈얼리티 가운데 숭고함을 추구하는 낭만적인 사랑과 에로틱함을 추구하는 열정적인 사랑으로 구분한 후, 논의를 전개한다. 낭만적인 사랑이란 정신적인 부분을 메워주는 영혼과의 만남을 가정하나, 기존의 제도와 쉽게 단절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열정적인 사랑이란 관능과 유희의 극단을 치달으면서 욕망의 극단을 추구하지만 제도와 규범과 단절한 채 필연적으로 파멸을 향해 나아가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보았다.

심진경은 모성을 생물학적으로 보는 시각이 모성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고 있다면, 모성을 사회 문화적으로 보는 시각은 모성이라는 실존적, 구체적 체험을 무시할 위험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그녀는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 모성과 생물학적 모성을 이분법적으로 가르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면서, 새로운 모성적 세계에 이르는 길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90년대 여성비평가들은 여성의 몸, 여성의 언어, 여성의 섹슈얼리티, 여성의 모성성이 갖고 있는 이중성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다. 젊은 여성비평가들은 여성들 간의 차이나 여성 내부의 분열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주체성과 고유성에 관한 관심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공통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제 더 많은 여성비평가들이

‘이전과 다르게, 새롭게 읽으며’ 공적인 담론에 균열을 낼 것이다.

1990년대 여성비평가의 공통점은 이들이 모두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의한 비평을 비판적으로 파악하고 여성의 경험과 여성의 시각을 작품화한 여성작가를 적극적으로 조망하고 있다는 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오정희, 박완서, 신경숙, 은희경 등의 작가들에게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동시에 1990년대 여성비평가들의 차이점은 그들이 관심을 쏟는 문제의식과 연관되는데 김미현이 여성의 몸, 신수정이 여성의 언어에, 최성실이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심진경이 모성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여성비평가들 안에서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

1990년대에 활동한 여성들은 이제 자신만의 개성적인 목소리를 획득하여 비평가로 호명되고 있다. 여성비평가들은 이제 페미니즘 이론들이 생산하는 차이의 정치성에 주목하고 그 이론들 사이를 횡단하고 접목하면서 지배 담론의 구조에 균열을 내고, 내부를 파열시킬 수 있는 변화를 모색해왔다. 여성비평가들은 여성 내부의 다양한 차이들을 탐색하면서 동시에 여성 집단의 공동문제를 고민하면서 미래로 나갈 것이다. 1990년대 여성비평가들은 기존의 비평담론이 부여한 이름을 다시 가로질러, ‘따로, 또 같이’ 활동하며 한국비평을 성장시켜 나갈 것이다.

참고문헌

1. 1차 문헌

김미현, 『판도라의 상자』, 민음사, 2001.

_____, 『여성문학을 넘어서』, 민음사, 2002.

신수정, 『푸줏간에 걸린 고기』, 문학동네, 2003.

심진경, 『여성, 문학을 가로지르다』, 문학과지성사, 2005.

최성실, 『육체, 비평의 주사위』, 문학과지성사, 2003.

2. 2차 문헌

- 구번일, 『모성의 수용양상-신경숙과 공선옥의 소설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2.
- 김숙이, 『2000년대 새로운 ‘여성주의운동’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7.
- 김양선, 『근대문학의 탈식민성과 젠더정치학』, 역락, 2009, 1~315쪽.
- 김연숙, 『그녀들의 이야기, 신여성』, 역락, 2011, 13~14쪽.
- 김재민, 『문학에서 드러난 여성운동과 그 비평담론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4.
- 김주연, 『현대 한국여성비평문학의 성장과 그 성격』, 『아시아여성연구』 44집 2호, 7~35쪽.
- 서재원, 『나혜석문학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25집, 2005, 207~225쪽.
- 서은아, 『신여성 나혜석의 근대적 자아정체성』,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6.
- 이상경, 『한국근대여성문학사론』, 소명출판사, 2002, 26쪽.
- _____, 『임순득, 대안적 여성주체를 향하여』, 소명출판사, 2009, 120쪽.
- 이희원 외, 『페미니즘- 차이와 사이』, 문학동네, 2011, 300~322쪽.
- 정정희, 『1990년대 여성작가 소설에 대한 비평담론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0.
- 황도경, 『우리시대의 여성작가』, 문학과지성사, 1999, 169쪽.
- 뤼스 이리가라이, 『하나이지 않은 성』, 동문선, 2000, 1~294쪽.
- 산드라 길버트, 수잔 구바, 『다락방의 미친 여자』, 박오복 옮김, 이후출판사, 2009, 1~1076쪽.
- 수전 보르도, 『참을 수 없는 몸의 무거움』, 박오복 옮김, 또하나의 문화, 2003, 1~446쪽.
- 엘렌 식수, 카트린 클레만, 『새로 태어난 여성』, 나남출판사, 2008, 1~306쪽.
- 케티 콘보이 외,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울출판사, 2001, 1~338쪽.

Gill Plain & Susan Seller, *A History of Feminist Literary Criticism*,
Cambridge U.P, 2007, pp.1~3.

Abstract

A study on Korean Female Critics

-female critics debut in 1990s-

Seo Jae-won

The study is mainly aimed to analyze criticism published by female critics who were debut in 1990s. It is zoomed in 4 famous female critics, KIM Mi-hyun , SHIN Su-jung, CHOI Sung-sil, SHIM Jin-kyung who published the first critique book in 2000s.

KIM Mi-hyun has pays attention to highlight the duality of female body compared by mermaid princess and amazones

SHIN Su-jung has an interest to focus on language of female contained duality of pain and jouissance.

CHOI Sung-sil focuses on female sexuality compared to between romantic love and passionate love.

SHIM Jin-kyung focuses on duality of maternity comparison by suppression and freedom.

1990s is monumental era that it was no more strange things woman become critics. As the time tended to coincide directly between maternity and post ideology, routine and internalization. Furthermore, women was able to step up to be a writer from a reader. The other valuable point is these female critics could newly initiate one of stream in Korean literature and criticism along with similarity and differentiation.

Key words : female critics, 1990s, female body, sexuality, maternity

- 본 논문은 10월 30일에 접수되어 11월 8일부터 11월 22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11월 29일에 게재 확정되었음.